

냉해 직격탄 나주 배 농민들 실질적 보상 촉구

“코로나 여파 농산물 소비부진·가격하락 등 겹쳐 생존권 위협” 재해보험 약관 보상을 50%에서 80% 원상복구 등 개선책 요구

올 봄 이상기온으로 나주 배 냉해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배 재배 농민들이 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나주 배 냉해피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8일 나주시청 앞에서 배 연구회, 작목반, 농민회 대표 및 나주 과수 농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냉해피해 특별대책 마련 및 재해보험 전면 개선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비대위는 당초 타 지역 농민단체 등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를 준비했으나 코로나19가 광주·전남으로 확산되면서 배와 관련된 단체 대표만 참여하는 소규모 집회로 축소해 진행했다.

비대위는 기자회견에서 “봄철 이상저온 현상으로 ‘배 꽃눈 고사 피해’ 및 ‘작과 불량 피해’가 역대 최대 규모로 발생했다”며 “코로나19 등에 따른 농산물 소비부진, 가격하락 등 어려움에 냉해까지 겹쳐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어 근본적인 대책으로 ▲냉해보상을 80% 원상회복 ▲농민 소득 보장 보험으로 전면 개선 ▲농업재해 국가책임제 확대 ▲직접보상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올해 나주 배 농사는 지난 4월 영하 4도까지 떨어지는 이상기온으로 꽃봉오리들이 얼어붙는 냉해 피해를 입었다. 피해 규모는 전체 2192농가 1943ha 중 1792농가 1692ha로 냉해 피해율이 87%에 이른다.

나주지역 배 농가는 사상 초유의 냉해 피해로 인해 올해 배 농사를 포기할 상황으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보험사가 올해 갑자기 냉해로 인한 피해 보상을 약관을 80%에서 50%로 하향시켜 실질적 피해 보상과 동떨어진다 지적이다.

농민들은 비현실적인 재해지원 대책을 개선해 실질적인 생산비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농업재해보상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봉주 나주 배 냉해피해 비상대책 집행위원장은 “보험사가 해마다 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이 늘어난다는 점을 이유로 약관 변경을 통해 보상을 50%로 낮췄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피해 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실제 파악에 들어간 상태다. 나주시가 지난해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48억 원(국비 70%, 도



8일 나주시청 앞에 모인 나주 배 냉해피해 농민들이 냉해보상을 인상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손영철 기자 yacson@kwangju.co.kr

비 15%, 시비 15%)이다. 농림식품부는 재해대책법에 따라 농민들의 경영 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전국 7만 4000여 농가에 총 1054억 원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kwangju.co.kr

스포츠로 '4메카' 서막 여는 장흥군

첫번째 과제 스포츠산업 활성화... 전지훈련·전국대회 유치 총력전 체육인교육센터 연 6만5000명 방문... 지역경제 파급 효과 52억 기대

장흥군이 스포츠로 '4(four)메카 장흥'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4(four)메카 장흥'은 장흥군이 스포츠·의향·안전·친환경 등 지역 자원 4가지를 핵심 동력으로 삼아 군민 행복시대를 열겠다고 내세운 전략 키워드다.

장흥군은 이 가운데 4메카 육성의 첫 번째 과제로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꼽고 있다.

스포츠메카를 추진하게 된 데는 장흥군의 온화한 기후와 산·동·강·바다를 두루 갖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 같은 지역적 장점을 활용해 전국 규모 스포츠 대회와 동계 훈련팀 유치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장흥군은 스포츠 분야의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갖춰지면 스포츠 선수와 가족, 체육인, 교육자 등 많은 수의 유동인구가 장흥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월 대한체육회 체육인교육센터 최종 후보지로 낙점된 것도 스포츠메카 조성에 탄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체육인교육센터는 전국 체육인들의 교육연수와 동·하계 전지훈련의 중심지로 사용되는 시설이다.

장흥군은 2차까지 이어진 후보지 선정 평가에서 치열한 경쟁 끝에 최종 선정의 쾌거를 이뤘다.

넓고 쾌적한 부지, 사계절 온화한 기후, 접근성, 각종 인프라 지원 등 장흥군은 체육인교육센터 입지에 최적을 여건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다.

체육인교육센터는 2024년까지 5년간 국비 약



장흥군에 들어설 예정인 체육인교육센터 건립 부지. 370억 원을 들여 부지면적 16만㎡, 건축 규모 2만 5000㎡ 규모로 들어선다. 장흥군은 체육인교육센터 운영이 시작되면 연인원 6만5000명 이상이 장흥을 방문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연간 52억 원에 달한다. /장흥=김용기 기자 kykim@kwangju.co.kr

화순군, 백아산 정상에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 추진

화순군은 백아산 정상(하늘다리)에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를 추진한다.

화순군은 각종 재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질 높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KT, SKT, LGU+ 등 이동통신 3사와 협의회를 열고 재정 부담, 설치 시기, 행정 지원 사항 등을 협의했다.

협의회에서는 통화 품질 향상을 위해 등산로 등산 정상 부근에 기지국 설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기지국 설치 장애 요소와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화순군과 이동통신 3사는 앞으로도 협의회 개최를 통해 기지국 설치에 장애 요인을 제거하기로 했다.

백아산은 등산객이 급증하고 있지만 통신 장애로 등산객 조난사고 등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기지국 설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지국이 설치되면 산불과 안전사고 신속 대응은 물론 질 높은 통신 서비스 제공과 안전한 등산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명기 화순군 산림산업과장은 “산악 지형에 따라 통신이 두절되면 119 소방대원과 우리 군 직원 등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고 야간 수색 작업에도 어려움이 많다”며 “어려움이 있다더라도 이동통신사와 원만하게 협의해 조속히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장마철 산사태 예방 팔 걷어붙인 장성군

읍·면 공조 취약지역 점검 등

장성군이 하절기 집중호우에 대비해 '산사태 예방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장성군은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해 잦아진 집중호우가 산사태 가능성을 높임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10월 중순까지 3개월간 산사태 예방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황실은 각 읍·면 및 산사태현장예방단과 공조해 산사태 취약지역을 점검하고 산사태 주의·경보 발령 시 자연재해대책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또 산사태 피해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응급 복구를 실시하고 상황 발생 이후에는 복구 및 피해 조사를 추진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철저한 예방대책 추진으로 산사태를 방지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지난 3월 산사태현장예방단을 구성했으며 4월에는 북하면 월성계곡 내 사방담(2개소) 조성 및 장성읍 단거리, 삼계면 부성리 계곡에 기슭막이, 바둑막이 등 계류 보전 시설물 설치를 추진해 6월에 마무리하는 등 산사태 예방 활동을 활발히 펼쳤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창업희망 서울 청년들 강진서 새 길 찾다

'넥스트로컬 강진캠프' 성료

강진군은 지난 2일부터 이틀간 청년 창업 지원사업인 '넥스트로컬 강진캠프'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8일 밝혔다. (사진) 넥스트로컬은 서울시가 강진군 등 13개 지자체

와 함께 서울의 청년이 지역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의 문제를 비즈니스 기회로 삼아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지역활성화와 청년창업의 꿈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다. 지난 2일부터 이틀간 강진을 오갔을 11명의 서울 청년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강진의 지역자원과 연계한 창업을 준비하기 위해 1박 2일 동안 강진 곳곳을 돌아보며 지역자원 조사와 창업 교육, 강진 청년과의 간담회 등의 땀땀한 일정을 소화했다.

서울 청년들은 정자, 귀리 등 강진의 특산품을 활용한 사업 외에도 관광, 영화, 예술치유 등 다양한 분야의 창업아이템을 강진에 접목한다는 계획이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Modern

Classic

Mediterranean Sea

클래식 스타일

지중해 스타일